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코로나 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2021.05.24.)

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71.6%, 코로나 19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 미쳐, 대책 마련 시급해...

- 서울·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1,451명 설문조사

-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1,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 본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사교육걱정이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2021와글와글작당회 1차 학부모편, 2차 현장전문가편」)를 개최한 결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임.
- ▲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조사 개요】

조사 기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조사 대상	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709명, 학부모 742명, 총 1,451명
조사 기간	2021.04.27 ~ 05.02 (6일간)

【①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원장 및 교사 71.6%, 학부모 68.1%, '변화있다'고 응답. 코로나19 팬데믹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발달 지연(74.9%),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 발달 지연(77.0%),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정서적 문제(63.7%), 사회성 발달 문제(55.5%)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②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변화】

10명 중 절반이상인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 '엄마표 사교육'이 늘었다고 72.9%,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이 늘었다고 60.0% 응답함

【③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점】

학부모는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67.4%가 응답하였고, 원장 및 교사의 69.3%가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건강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 ▲ 정부 및 지자체는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 확대.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 마련.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1년 5월 24일 오전 11시,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1,45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기관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코로나19가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 및 권리 보호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 역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보육 현장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교육/돌봄/발달’ 등 가장 크게 당면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유보육 현장에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가정 및 원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2021년에 기대하는 유아교육현장의 변화는 무엇인지 등을 경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두 기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특히 영유아의 언어발달, 신체발달, 사회성 정서 발달 지연, 미디어 노출 증가, 장애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발달 격차 심각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 데이터로서 확인하고,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영유아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개요 및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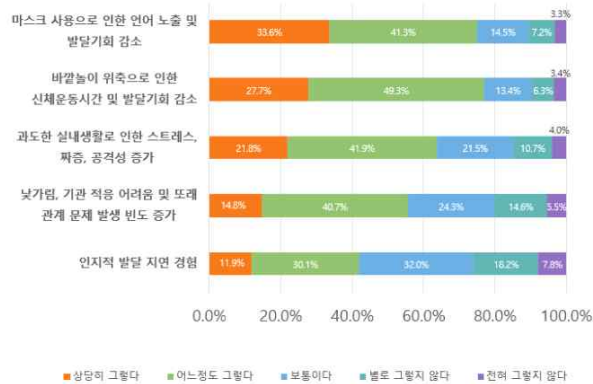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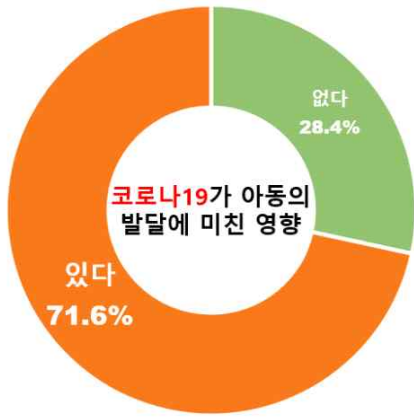
조사 기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조사 대상	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709명, 학부모 742명, 총 1,451명
조사 기간	2021.04.27 ~ 05.02 (6일간)

1)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

서울·경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게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감염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기관의 아동들에게 이전에 없던 발달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물었더니, 원장 및 교사의 71.6%,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원장 및 교사의 74.9%(상당히 그렇다 33.6%, 그렇다 41.3%)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뒤이어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77.0%(상당히 그렇다 27.7%, 그렇다 49.3%)가 응답했고,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63.7%(상당히 그렇다 21.8%, 그렇다 41.9%)가 응답했으며, ‘낮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55.5%(상당히 그렇다 14.8%, 그렇다 40.7%)가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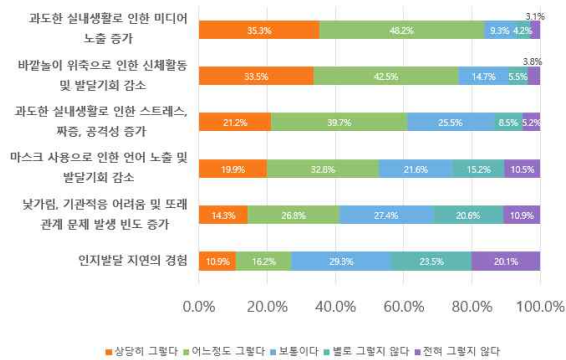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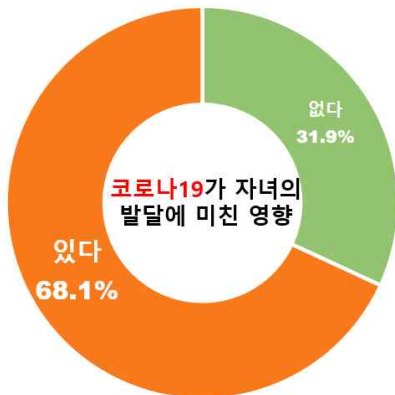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 (원장 및 교사)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춘숙의원실(2021.04)
 서울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학부모들이 느끼는 아동의 발달 지연에 대한 위기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을 때 학부모의 76.0%(상당히 그렇다 33.5%, 그렇다 42.5%)가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뒤이어 60.9%(상당히 그렇다 21.2%, 그렇다 39.7%)가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52.7%(상당히 그렇다 19.9%, 그렇다 32.8%)가 응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한해동안 가정보육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83.5%(상당히 그렇다 35.3%, 그렇다 48.2%)나 되어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가 자녀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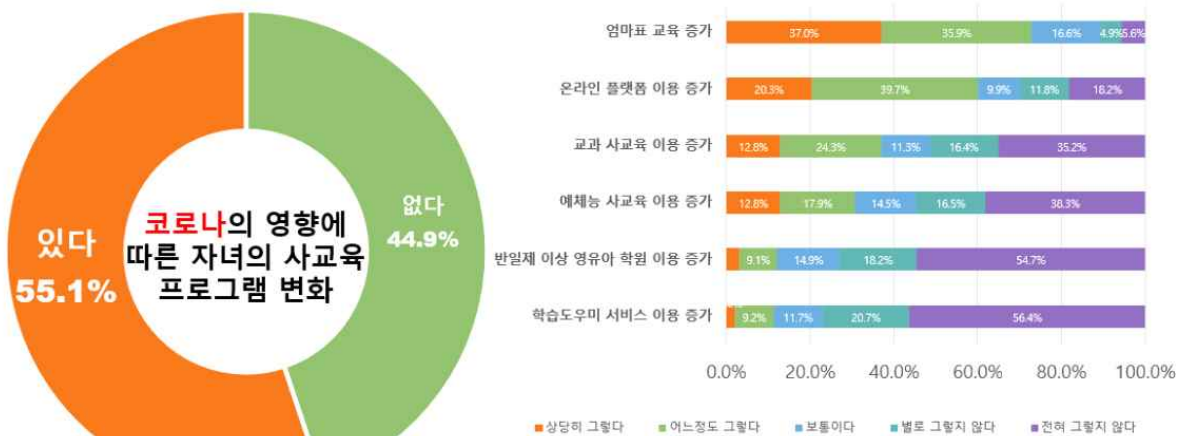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춘숙의원실(2021.04)
 서울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2) 코로나 19가 아동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미친 영향

학부모들에게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전후로 자녀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을 때 10명 중 절반이상인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변화는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등의 **엄마표 사교육**’이 늘었다고 72.9%(상당히 그렇다 37.0%, 그렇다 35.9%)가 응답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영어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이 늘었다고 60.0%(상당히 그렇다 20.3%, 그렇다 39.7%)가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녀 사교육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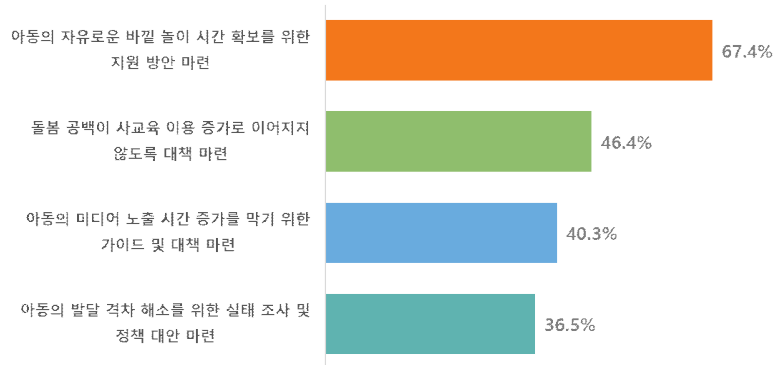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춘숙의원실(2021.04)
 서울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3)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학부모는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67.4%, ‘**돌봄 공백이 사교육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 46.4%,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를 막기 위한 가이드 및 대책 마련**’ 40.3%로 각각 응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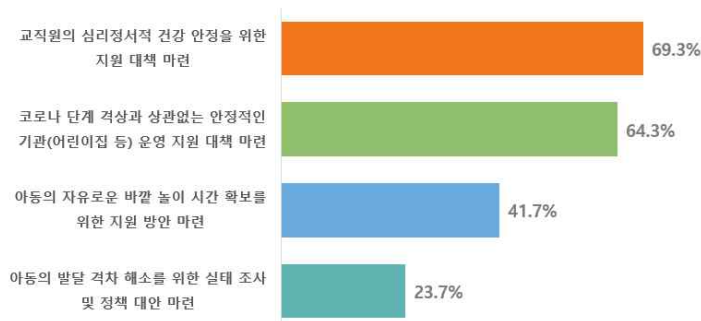
원장 및 교사는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건강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69.3%, ‘**코로나 단계 격상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 지원 대책 마련**’ 64.3%,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41.7%로 각각 응답하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 (학부모) *중복응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준숙의원실(2021.04)
 서울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 (원장 및 교사) *중복응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준숙의원실(2021.04)
 서울경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및교사(709명) 학부모(742명)
 총1,451명 대상 조사

■ 정책 제언

이상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단지 아동의 감염병 위 기상황 뿐만 아니라,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발달 지연,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 발달 지연,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정서적 문제, 사회성 발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이 수치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 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교육 현장 경험을 통해 ‘나이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이 인지나 신체 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고, 전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사회성과 아이들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퇴보’되었다, ‘교육 면에서 한 살을 뒤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생활연령이 낮아”졌다”고 주관식 응답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생활연령 퇴보 문제 외 언어 발달 지연, 정서적·사회적 의사소통 발달 지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및 지자체가 **유치원·어린이집과의 적극적 소통망 구축으로 조기에 발달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아동/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과 모니터링 및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서적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 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기관 내 교사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 7월,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¹⁾을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와 교사들은 코로나 재난 사태 이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²⁾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정 내 ‘부모’, 기관 내 ‘교사’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 이와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의 ‘아동’, 즉 ‘교육의 3주체’의 역동성 속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확산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제1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에서 ‘영유아기 시기는 생애 초기 경험의 누적적·결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감염팬데믹으로 인한 육아 환경의 변화가 아동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³⁾며 코로나19 아동의 생애발달과 격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영향력이 202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아동들의 발달지연은 3년 이상이 누적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 1학년에 진학했을 때의 발달 격차 및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양을 핵심성취기준 위주로 진행하거나, 난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며, 입학

1)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 방역 시리즈, 영유아 심리 방역 매뉴얼

01. 감염병 재난이란?, 02. 감염병 재난은 왜 스트레스일까요?, 03.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알아보기, 04. 영유아 부모와 교사를 위한 감염병 재난 기본 대응 방법, 05. 영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이해하기, 06. 영유아에게 감염병 재난 설명하기, 07. 재난 후 영유아가족 적응 돕기, 08. 사례를 통해 배우는 영유아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09. 기타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10. 영유아와 함께 하는 마음 도닥이기 활동

2) ①부모: 코로나 전과 비교하여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변화 ‘증가하였다’ 부 51.0%, 모 59.6%. ②아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원아동의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영아 41.2%, 유아 45.0%. ③기관: ‘원장과 교사의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원장 86.7%, 교사 82.2%.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최윤경 외, 2020)

3) 최윤경, 코로나19 팬데믹과 육아분야 현황 및 주요 쟁점, 육아정책연구소, 2020.7

후 개별 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 및 도움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더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사회생태적 영역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가 제한되면서 ‘개인’ 차원에서는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적’차원에서는 놀이 공간에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아동의 놀권리가 더 많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 19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동의 발달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바깥놀이를 확대하여,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신체 발달 지연, 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의사소통 발달 지연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아동 발달 지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아동 놀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아파트 내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기관도 많고, 숲놀이터 체험을 가고자 해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실행으로 안전장비 구비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다양한 바깥놀이를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놀이터 개방에 미온적인 시민들의 인식개선 운동을 지속하며, 유아교육기관이 개정법 취지에 걸맞게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원장 및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근본적인 보육의 질을 끌어올려’달라, ‘각 아동에게 개별적인 지원의 기회를 더 늘리고 경계성 아동 및 문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시행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 결과에서도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 보육현장의 1순

위 요구사항인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개선과 관련해 총 52억원을 투입하여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사업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작년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연차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한 교사 공백 등의 이유로 필요한 대체교사 수급, 인건비 부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1. 5. 24.

국회의원 정춘숙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

[첨부1]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모음

4)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110곳, 보육교사를 1명씩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지원. 선정된 어린이집은 1개 반을 신설하고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해서 시범 운영. 어린이집 내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0세반'이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듦.

[참고자료]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모음

■ 원장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

문2-6. 아동의 발달 상황 변화 (원장 및 교사 기타 응답)

□ 전체적인 발달 지연

- 영유아 발달에 큰영향을 주고 있다
- 대면교육의 어려움으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 할뿐아니라 집합교육의 배제로 인해 2020년은 가정교육이 많았던바 기본생활습관등이 어려움을 가져왔고 일단 교육면에서는 한 살을 뒤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가정교육의 빈도가 많아지면서 생활습관등이 제대로 교육되어지지 않아 사회성과 아이들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퇴보되어 보입니다.
- 대부분 영유아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단체생활 경험이 없어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부분과 발달이 대체적으로 느리다.
- 생활연령이 낮아짐
- 나이보다 한살 어린거 같이 인지나 신체 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고 전체적으로도 나이에 해갈되는 전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 영아반에 새로운 놀잇감 제시했을때 놀잇감에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보이는 양상이 활발하거나 적극적이지 않고 교사의 직접적 상호작용과 안내가 있을 때 참여해봄.

□ 기본생활습관 형성 문제

- 기본생활습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기본생활습관도 많은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 결석이 길어져서 일상생활의 자조능력이 다른 해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 언어발달 지연

- 마스크가 영아들의 언어와 인지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음.
- 장애통합반의 경우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발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기가 어려웠음
- 마스크 착용으로 영아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줌
- 마스크를 착용하여 영아들의 경우 언어발달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언어확장하는 시기에 소리뿐만 전달이 되다보니 아쉬움이 큰 것 같다
- 표정이 보이지 않아 언어발달이나 애착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마스크를 쓰고 하는 소통은 소통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의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확한 소통을 위해 반복질문을 함으로써 짜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 의사소통지연
- 아이들 표정 파악이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 정서문제

- 아이들의 실외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서조절이 어려움.
- 전체적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
- 코로나19로 부모님 실직 등으로 가정 불화 잦음으로 영유아 정서불안 등의 심리적 변화 발생
- 바깥놀이 제한으로 인해 영유아 스트레스 지수 증감 및 교사의 다양한 보육활동 지원에 제약이 따름

□ 사회성 발달 문제

- 사회관계지연
- 사회성 어려움

□ 다양한 경험 제한

- 실외놀이가 없어지면서 신체발달에도, 자연을 체험하기 위한 기회제공이 줄어들어 아쉬움
-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어 영유아에게 제공되어지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 외부활동 제한으로 다양한 현장체험을 못 하는 부분이 아쉽다.
- 체험이나 견학, 특별활동, 행사 등이 취소되고 무한 연기되었음

□ 기타

- 부모참여의 어려움으로 신학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실 참관이나 참여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보육과정과 영유아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 게임과 미디어 노출의 증가
- 작년 신설로 인해 그 전 영유아 상태 파악이 어려움

문4. 지원 필요한 점 (원장 및 교사 기타 응답)

□ 교사대아동비율

-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 각 아동에게 개별적인 지원의 기회를 더 늘리고 경계성 아동 및 문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교사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
- 스트레스 받아 심리적인 문제가 많은 아동이 더 많이 늘어났지만 교사 대 아동의 인원수가 줄지 않아 교사의 업무는 너무 과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대 아동의 인원수를 만4,5세 원아도 감소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
- 저출산 시대에 국공립 개소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보육의 질을 끌어 올렸으면 함
- 아동대 교사 비율 등의 조정
- 교사지원율을 높여주거나 교사와 아동 비율을 낮춰주세요
- 솔직히 공간에 비해 교사대비 아동수가 많고 결석인원도 없기에 거리두기가 힘들
- 교직원 심리정서 교육같은거 말고 실질적으로 심리정서 건강 안정을 위한 휴가 증가 또는 교사대아동비율 감소

□ 공간 확충

- 자연 또는 실내에서 활동할수있는 공간과 지원마련

□ 정확한 지침 마련

- 지침을 자세히 전달
- 명확한 매뉴얼. 상황에 따라
- 코로나가 심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확실한 기준과 시행방법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침을 내려놓고 학부모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이나 해결을 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다. 아이들의 등원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어서 서로간에 오해를 사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 학부모 협조 요청

-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긴급보육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

- 아동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의무 가정보육
- 감염자가 많아 심각한 상황일때 어린이집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늘 어린이집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교직원 건강관리뿐만(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 가정보육중인 원아의 가정도 검사권고 지속적이어야 관리가 될 것 같음
- 가정 내 방역 지침 안내 강화 ex)호흡기 증상 등원
- 학부모님과 아이들 역시 교사처럼 개인위생 동선에 유의하기 확보
- 정부지침에 따른 휴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협조 요청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모의 인식개선
- 각 가정의 여행자제
- 교사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지역이동이나 코로나 검사 등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함. 교사에게 제한을 두며 아동과 부모들은 캠핑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 것이 지속되는 이 상황이 조금 부조리하다고 생각함.
- 긴급보육이지만 출석율은 100프로임
- 제발 가정보육
- 부모들의 지침 준수 강화 및 함께 책임지는 행동 수칙 필요
- 학부모도 보육교사와 동일시 한 달에 한 번 검사 요청

□ 가정 지원

- 가정양육지원 / 코로나 격상 시 가정양육지원

□ 대체인력 강화

- 보조교사 지원
-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있는 아동이 등원 시 대체인력
- 교직원 식사 및 소독방역으로 인한 원마다 교직원 1명 상시 근무자 채용 지원 마련
- 실질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구하기 힘든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구인해야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책임을 원장에게 떠안기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원장이 안고 있는 부담감은 모든 영역에서 너무 광범위하고 크다

□ 교직원 관련 대책

- 교직원 지원이랍시고 쓸모없는 교육은 금지.. 차라리 돈으로 보상해주세요 휴가나
- 보육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 교직원의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함
- 교실에서만 있어서 폐쇄공포증이 있는 교사들이 많아요.
-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
- 민원발생하지 않게 해라 가 아니라 기준을 학부모의 민원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에 두고 보육교직원도 한 아이의 부모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명확히 있어야합니다.
- 매달하는 선제적검사가 퇴근후나 주말에 이루어지는것에 대한 보상 필요.차비 시간비용등등.
- 부모 모두 각종 늘어난 교육과 필수 교육의 증가와 서류 증가로 인한 피로

□ 원 경제적 지원 대책

- 재원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비지원
- 보육현원에 상관없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사업자대출도 해당안되고 힘듭니다!!!!
- 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이라 개인사업자라 볼수도 없고 개인신용대출

□ 코로나 대응

- 현실성있는 코로나 대응책 마련.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마스크 착용의 영아들의 어려움 등...
- 서류 확인 부담 없는 코로나 방역 컨설팅 점검
- 코로나 격상시 유치원과 동일 대응
- 코로나관련 방역점검이 아닌 지원

□ 예방접종 관련

- 빠른 예방 접종 실시 / 빠른 백신 수급이 관건 / 예방접종
- 보육교사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때 부작용이 적은 화이자로 접종해 주길 바란다

□ 기타

- 운영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교사들의 투명 마스크 제공 요청
- 체험활동이나 지역연계활동에 대한 지원

■ 부모 대상 설문조사

문3-7.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변화 (부모 기타 응답)

- 방문 교사가 오던 학습지는 끊고 엄마표 학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외부수업이나 학원 이용에도 제한이 있어 엄마의 양육 및 교육 부담이 커졌습니다
- 문화센터 등 방문 수업을 할 수 없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늘었다
- 학원 선택도 소수 정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을 선택함으로써 비용도 높아 부담이 됨, 유아가 있는 가정은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어 학원도 보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자가 모두 해야하는 상황임 교육 공백이 심히 걱정 됨
- 다니던 학원을 정리했음
- 학습지 이용 중단
- 방문 학습지를 하다가 그만 됨
- 코로나로인해 교육기간에서 진행하던 영어, 체육 등 특별수업이 미진행됨에 따라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아짐

문4-7. 아동의 발달 상황 변화 (부모 기타 응답)

- 지속적인 가정내에서만 생활하고 활동량이 거의 없어 식욕부진, 면역력 및 기초체력 저하, 과도한 미디어 노출 (온라인 수업 유튜브 링크로 인해 너무 어린나이에 노출 됨). 쌍방향 수업이 아닌 일방적 주입식 수업이 되어버림. 사회성이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 해나가지 못함
- 또래보다 표현하는것이 서툴러 놀이 심리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또래관계 형성이 도움이 되는 단체 활동이나 모임 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음
- 8세 아이의 인지발달이 심각해져서 지금 사교육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 긴급보육 이용했고, 코로나로 인해 발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바깥활동이 줄어들고 미디어 노출이 높아진것 같습니다.
-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영어, 체육 등 활동은 물론 체험학습도 없어짐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기회가 없어짐
- 아이들이 어려 아직은 티가 안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함
- 모든 문항 다 해당됩니다

- 가정내 구성원들과 교류가 늘고 애착관계 강화

문5. 지원이 필요한 점 (부모 기타 응답)

-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 관련 정신적 상담등이 필요함
- 장애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회성 발달 결여등을 치료 지원으로 만회바람
- 교육프로그램 형성으로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교육할수있는 프로그램 마련
- 돌봄 공백으로 회사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 아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인증되고 부작용이 적은 백신및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고 백신도 제대로 인증이되고 효과가 높은 화이자 안전성이 있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접중되길
- 마스크 벗는 일상생활!